

일주문



군불총 창립 16주년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3월 25일 오후 6시 국방컨벤션에서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보름미타 지장기도법회 일광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2월 22일 경내 청풍루에서 '보름미타 지장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생명산림 방생법회 원명 강남 봉은사 주지 스님은 4월 9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생명산림 방생(放生) 대법회'를 봉행한다.



선지식 초청법회 법안 서울 금선사 주지 스님은 3월 6일 오전 11시 반야전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 초청 '선지식 법회'를 봉행한다.



연등 디자인 공모 탄용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3월 16일까지 '국제선센터 연등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의료봉사 제2도약 기회 삼겠다”

류재환 (사)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허가 받아 회원 참여 유도 역량 결집 나서 의료봉사 활동 적극 확대할 것

“1999년부터 시작된 불자의료인들의 모임이 17년이란 세월을 거쳐 사단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단체의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의 새 출발을 다짐하고, 회원들의 역량을 한 데 집중시키겠습니다.”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사진)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데 대해 '제2의 도약'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난 1월말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는 2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류재환 회장은 새로 거듭나는 병불련의 목표로 의료진 확충·안정적 재정기반 마련·회원 참여 유도 등을 꼽았다.

류 회장은 “현재 연합회에 안과·내과·소아과·한의학·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있지만 이비인후과나 외과계 의료진은 없는 상황이다. 봉사분야를

넓히기 위해 새로운 불자의료인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그간 회원들의 회비로 단체를 운영해왔는데 사단법인으로 변모한 만큼 재정적 후원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 병불련은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사단법인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적으로 단체명에서 '불자'가 종교를 표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17년간 사용해온 단체명이었기에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가기도 했다. 다행히 법인 설립과 관련해 기독교계의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류 회장은 “실무진이 법인 설립을 위해 세종시에 여러 번 다녀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법인을 위한 사무실을 구하는 데 애를 먹은 부분은 아쉽다. 포교원·중앙신도회와의 조율이 잘 되지 않아 고생하다 연화사에서 도움을 주셔서 성공적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불련은 앞으로 대덕스님들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발전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첫 지도법사로 서울 흥천사 회주 정법 스님을 추대할 예정이다.

류 회장은 “연합회가 법인으로서 기존의 의료봉사를 더욱 확대하겠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총동림동문회, 동국대에 1천만원 무문 스님 “동문회 창립 이후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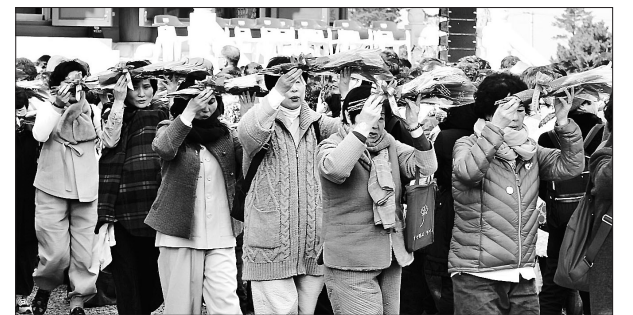


동국대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 제11대 임원진은 2월 2일 동국대에 불교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제11대 회장 무문 스님은 “학명, 지담 스님 등 11대 임원진들의 심의일반 모연으로 총동림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현지사 제주분원, 대웅전 점안봉불 대적광전·약사성전에 이어



현지사 제주분원 대웅보전 점안봉불식이 2월 21일 10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현지사 제2본산인 제주분원은 지난해 대적광전, 약사성전 점안봉불식을 연 데 이어 올해 대웅보전 점안봉불식으로 3년간의 대작불사를 회향했다.

윤호섭 기자

고엽제전우회 자매결연 기념식

국사암, 옥천명가서 위문품 전달



태고종 옥천 국사암(주지 혜정)은 2월 23일 옥천 명가에서 고엽제전우회 옥천지회(지회장 이종선)와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만 옥천군수, 민경술 옥천군의회의장, 김영년 고엽제 총복지부장, 국사암 주지 혜정 스님과 옥천지회 회원이 참석했다.

자매결연 기념식에서 국사암 주지 혜정 스님과 신도들은 고엽제전우회 측에 위문품으로 현금 130만원과 라면 200개 등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성장과 변화, 더 나은 미래로”

조계종복지재단, '창립21주년 기념법회'

“조계종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 복지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16년을 만들겠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아래) 조계종복지재단은 이날 2016년 사업기조 '행림회춘, forward 20'을 발표하고, 재단 산하 시설 및 시설장들에게 함께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올해 불교사회복지의 성장과 변화, 나아가 미래를 위한 공덕의 씨앗을 심겠다”면서 “재단 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산하시설 모두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이날 20년 이상 꾸준하게 근무한 장기 근속자를 선발, 치하했다. 수상자는 풍기어린이집 원장 해득 스님, 오재원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운주 금호정소년독서실 관장, 연제만 청삼정소년독서실 관장, 강점연 합동마을어린이집 원장 등 5명이다. 박아름 기자



불교 종립대 학위 수여식 잇달아

불교 종립대 학위 수여식이 잇달아 개최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2월 18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앙당에서 2016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위)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061명, 석사 503명, 박사 110명 등 총 2,674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고난이 닦쳐올 때 모교는 기꺼이 여러분들의 등대와 나침반이 되어 주겠다. 평생 AS를 제공할 테니 힘을 내어 과감하게 도전하고 자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19일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334명, 석사 55명, 박사 9명 등 총 1,398명이 졸업했으며, 경주캠퍼스 경영학과 재학 중 유명을 달리한故안희진 씨에게 명예학사학위가 수여됐다.

조계종립 중앙승가대(총장 원행)는 26일 자비관 강당에서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석사학위 15명(불교학과 11, 사회복지학과 4), 학부 56명(불교학 16, 역경학 9, 포교사회학 16, 사회복지학 15)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이밖에도 천태종립 금강대는 27일 학위수여식을 개최했으며, 진각종립 위덕대는 24일 졸업식을 열었다. 신성민 기자

“1대1 아동 결연사업에 중점”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 관장 해공 스님

“스리랑카 복지타운 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현지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스리랑카 현지에서 한-스리랑카 문화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조계종복지타운 관장에 해공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한·스리랑카 문화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집무실에서 해공 스님을 신임 관장으로 임명했다.

해공 스님은 이날 “스리랑카 복지타운 내 어린이들에 대한 국내 후원자들과의 1대1 결연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현지에서 협력업체 등을 모아 교육·취업에도 신경 쓰겠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조계종에서도 현재 후원을 하고 있는 만큼 스리랑카 불교계와 조계종과의 불교교류의 가교역할도 하겠다. 불교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식에서 “해외 복지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잘 이겨내고, 관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은 조계종 최초의 해외복지 시설로 2008년 7월에 완공됐다. 현재 서울 도선사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운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